

창세기 11:26-32 축구 시작했다고, 곧장 World Cup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세계무대에서 쟁쟁한 선수들과 당당히 실력을 겨룰 정도가 되려면, 훨씬 전부터 대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승우'란 선수가 '16 세 이하 아시안 컵' 축구에서 최다득점상에 MVP 까지 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들어가기 훨씬 전, 어려서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빛을 보는 겁니다. 보통 16 살짜리라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희생한 결과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연습하면서, 패스, 킥, 그리고 드리블 기술을 익힌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 없이는 인생을 바쳐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초보자가 세계 수준의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대 자체가 무리입니다. 때로 지루하게, '대체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회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담금질한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최고의 코치처럼, 성도들이 준비 시키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십년이나 광야에서 '씩히'십니다. 자기가 치던 양떼 만큼이나 완고한 무리를, 사십년 광야에서 이끌 준비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람 이야기에서 지나치기 쉬운 게, 준비 기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준비 시키시는 주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 11:26-32 같이 읽겠습니다.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기도)

창세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할 때, 6:9 '이것이 누구의 족보니라' 37:2 '누구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돏이라는데, 톨레돏으로 시작합니다. 창 11:27 절이 톨레돏으로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아브람 얘기는 대개 창 12 장부터 시작되는 걸로 압니다. 족보를 유심히 살피면서 성경 읽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족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의 이야기는, 75 세에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게 시작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없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하란에 오셔서, 쓸만한 사람을 찾다 아브람을 고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아브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브람 본인도 아주 나중이야 그것을 압니다. 31-32 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처음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장남 아브람, 차부 사래,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리를 떠납니다 (첫 ppt). 왜 그랬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 시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인구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르(빨간 별)를 떠난 데라는 도중에 하란(노란 원)에 멈춰 정착하고 가나안(청색 육각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가슴 속에는 가나안으로 가야한다는 게 깊이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람이 채비를 가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쓰실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물론 데라 역시 무작위로 뽑힌 게 아닙니다. 11:10-26 족보를 꼼꼼히 보지 않아도, 데라가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한 사람은 족보가 10 대로 이뤄진 걸 알아챱니다. (다음 ppt) 홍수로부터 아담 계보를 보존한 노아가 아담

계보에서 십대째고, 셈의 계보에서 아브람이 십대째입니다. 이런 사실은 노아처럼 아브람을 통해서도, 새로운 구원 계획이 진행된다는 걸 짐작케 해줍니다. 아브람이 그런 사실까지 알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미 치밀하게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익숙한 관계들, 편리한 삶을 정리하고 하란으로 떠났던 것도, 그 준비의 일부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톨레돏이 창세기 11:27 에 있는 겁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는 건딜 수 없는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30 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런 다음 “자식이 없었더라.” 여자 가치가 임신하고 아이 낳는 능력으로 결정되던 시대에, 자식을 못 낳는 것 이상 치명적 결함은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성경은 잔인하게도, 사실적으로 두번이나 확인까지 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도했고,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라의 그 무력함이, 하나님께서 당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녀를 준비케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참 역설입니다. 사라가 약속된 후손의 어미가 되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그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늘 분명치는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을 동안, 그 훈련 목적을 알았을까요? 십중팔구 자기는, 애굽 왕궁에서도, 동족에게서도 잊혀진 존재로 ‘썩고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말 안듣는 양때문에 짜증날 때면, 스스로 영원한 낙오자라 자책하며 절망했을 겁니다. 바울 역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불러 주기까지,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준비될 동안, 그 훈련 목적을 알았을까요? 십중팔구 자기는 유대교에서도 잊히고 기독교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찍힌 낙오자로 썩고있다 느꼈을 겁니다. 누구도 위대한 일을 위해, 자신이 준비된다는 걸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 자기를 이끄는 손길을 못 느꼈을 겁니다. 사례도 불임의 고통에 눈물 지어야 할 이유를,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훗날 인생을 돌아 볼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자기들 삶 속에 역사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신 걸 깨닫지, 당시에는 전혀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을 믿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종종 어떤 방법으로 쓸만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지 알면,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맡게될 임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핵심적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훗날에 현재를 돌아볼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 역시,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K 그룹중에도 소망 K 그룹이 있는데, 제가 세인트루이스 있을 때 거기도 소망 K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 아내와 같이 섬겼던 청년들이 와서 물어봤더니, 그룹원원은 바뀌어도 아직 있다고 하더군요. 그룹 이름을 왜 '소망'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룹원 모두가 세인트루이스를 떠날 소망에서 그룹 이름을 소망으로 지은 겁니다. 포닥을 7년째 하는 그룹장 집사님부터 박사과정 학생 부부까지, 어서 연구실적 쌓고 학위받아 떠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콜럼비아 떠나는 게 소망인 분들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 그룹장님은 지금 워싱턴 어느 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저는 그때 사십대 중반인데, 겨우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들보다 더 세인트루이스 벗어나길 소망할만 사람이 저 밖에 없어 봤던지, 소망 K 그룹원들이 저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룹장이 한번은 밥을 사면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분명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텐데, 너무 앞이 안 보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

제 처지가 생각났는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 보고 웃다 울다,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로를 맡기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지만,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더 늦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미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준비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물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고, 그 느낌을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에 무오한 지침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느껴도, 그런 느낌은 성경과 우리가 지체로 있는 교회의 지혜와 분별에 맞춰 튜닝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우리 선을 위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게 분명 드러날 때, 그때는 용기를 얻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러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기 전에, 수많은 상황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세는 80 세까지 아브람은 75 세까지, 누구나 은퇴할 나이에 여전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준비된다고, 당장 달라보이지도 않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래를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셨지만,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라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세겜에 도착할 동안, 가는 데마다 오아시스가 있어 힘이 불끈 솟은 것도 아닙니다. 밤에 별이 나타나 갈 길을 밝히 인도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시 이동하는 수많은 대상이나 베드윈 중 하나로 보였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을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구분짓는 차이였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과 아닌 사람이 뭐가 다른니까? 잘난 것도, 부유한 것도,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담 우리가 다른 게 뭘니까? 하나님 약속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다릅니다. 또 롬 8:28 매사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상과 우리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게는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고, 어찌되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된다고 감사할 대상도 못된다고 불평할 대상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잘된들 거기 이유가 있을 수 없고, 못된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기 내세울 어떤 약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게 요행으로 잘되길 바라고, 잘될 거란 막연한 기대 속에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통해, 당신 영광과 우리 유익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낍니다. 어려움에 인간관계가 금가고 고통 당할 때는, 아브람처럼 사래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며 짐승처럼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안 흔들릴 사람 있습니까?

정답만 말하는 설교자들을 미워했지만, 저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해하고 느껴 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놓이지만 앎으면 됩니다. 아브람이 배워야 했던 교훈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그 경험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한두번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서, 그 교훈을 배우고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많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브람보다, 분명 유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당신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보다 충분한 교육 자료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고향 친족을 떠나면서 의지할 거라곤,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증까지 있습니다.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보증은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그 약속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 속에 사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걷는 이 믿음의 광야길에 동행하시며 보증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미래 어느 시점 여러분이 맡게될 임무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데 핵심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실 명심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 믿고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